

“빛으로 버티는데 여전히 터널 속”

코로나19 사태 2년... 벼랑끝에 선 자영업자들 방역강화 조치로 손님 발길 줄면서 매출 ‘뚝’ 정부 영업손실 피해 지원하지만 턱없이 부족

제주시 노형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년간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은 반토막 났고, 상가 임대료를 내기도 쉽지 상황 탓에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에는 치킨집을 운영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의 긴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 또 다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연말 특수도 누리지 못했는데, 설 특수 또한 놓치게 되는 것 아닐지 걱스럽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고 있지만, 영업 손실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책 방안 등을 제주도의회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건의서에는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신설, 디지털 매니저 양성, 조례신설, 소상공인 대상 교육, 금융지원, 폐업 창업, 컨설팅 등 지원,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기업의 카드 수수료율은 전액 지원, 제주도민에 한해 영업시간 연장 등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방역 강화 조치 연

장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1999년 변호사 피살사건 결심 공판 “피고인 죄책감 없고 책임 회피”

검찰, 무기징역 구형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50대 피고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모(55)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의 혐의는 살인과 협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前) 유탁과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동갑내기 조직원 A씨와 함께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명불상의 사주자에게 “이승용 변호사를 손 좀 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뒤 범행을 저

질렀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준비한 뒤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사건 배후와 살해 이유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 조사에서도 모든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것에만 골몰하는 등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 밖에도 피고인은 금전적 대가를 바라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기만까지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단순히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존해 공소사실을 만들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씨는 “검사님 내가 죽어야만 결백을 믿어주겠나”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은범기자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분야 제주119 전국 ‘최우수’ 선정

제주소방안전본부는 ‘2021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8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 및 응급처치 실시율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제주소방은 구급차량 구급대원 3인 탑승 정착, 중증 응급환자(심정지 등) 발생 시 다중출동체계 확립, 특별구급대 운영(4대), 전국 최초 다수사상자 이송용 응급버스 도입 등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송은범기자



수선화 활짝 핀 겨울 제주 10월 수선화가 만개한 제주시 한림공원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 떠나려는 교원들 ‘주춤’

2020년 77명→2021년 59명→2022년 50명

타 시도로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교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른 시·도로 교원 교류(3월 1일자)를 신청한 도내 교원 수는 2020년 77명(초등 29명, 중등 48명), 2021년 59명(24명, 35명), 2022년 50명(19명, 31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중등교사의 경우 2017년 35명, 2018년 68명, 2019년 72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장 희망하는 진출지역은 서울(2020년 32명, 2021년 18명, 2022년 14명)과

경기(13명, 16명, 15명)였다.

보통 진출 희망의 주 이유로 얻고자 문제가 꼽히는데, 최근 진출 희망 감소세를 두고 코로나19 영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도 있다.

한편 시·도간 인사교류는 공립 초·중·고교사는 동일 직위·직급간, 중·고교사는 과목별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제 성사율은 높지 않다.

교류 확정 인원은 2020년 24명(초등 7명, 중등 17명), 2021년 28명(15명, 13명), 2022년 21명(13명, 8명)이다. 오은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건강증진추진단 상담교사 학교로 보내야”

제주교사노동조합 교육청에 촉구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직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학교로 돌려보낼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한시 조직으로 운영해오다 올해

부터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을 정규기구로 격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문의(단장)를 비롯해 전문상담교사 7명(장학사 1명 포함) 등이 배치돼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전문의가 담당한 학생을 추수상담하는 것으로

홍보하며, 민원인에게 수백통의 치료비를 안내하게 하거나 전문의의 자문 시 동행해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는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상담보다는 각종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행정처리, 시설설계, 용역계약, 감사 및 의회관련 업무 등에 시달리며 전문상담교사 직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은지기자

“건설현장 안전대책 마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 본부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건설현장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 제주본부는 이날 “지난 8일 제주시 애월읍 신업리의 공사 현장에서 무너진 흙에 깔려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영기자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주)팜그린텍

특허 제10-2078975호

-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특허받은 모터캡 사용으로 모터 2중보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 특허받은 바람판 토출구로 인해 사각지대 최소화
- 침체된 하우스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광합성 촉진
- 균일한 생육 및 성장 촉진
- 하우스내 상/하부 온도편차 감소
- 여름철 고온피해 및 겨울철 냉해피해방지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특허 제10-2182942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향상
고풍압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셔터 별도판매
모터 별도판매
-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